

## 최신 여성 패션에 나타난 세퍼레이션 색채 코디네이션의 특성

- 2004 SS부터 2008/9 AW까지 파리, 밀란, 뉴욕, 런던 컬렉션에 나타난 디자인의 색채 배합, 색상조화, 분리색을 중심으로 -

권혜숙

상명대학교 디자인 대학 의상 디자인 전공 교수

## The Characteristics of Separation Color Coordination In Current Women's Fashion collections of Paris, Milan, N.Y, London from 2004 SS ~ 2008 A W

- centering on the types of color scheme, color harmony, separation color -

Kwon, Hae-Sook

Professo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Sang Myung University

### Abstract

The main objective of this research wa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separation color coordination of contemporary female fashion through the analysis of 'pre-a-porter Collections' of four collections (i. e. cities) - Paris, Milan, New York, London - from the periods of 2004 S/S to 2008/9 A/W.

The data collection of 265 was done by reviewing 'pre-a-porter Collections' magazine and total 265 observations were made. Statistical analysis of frequency and also qualitative interpretation of separation color coordination characteristics were completed.

The main findings were;

(1) In separation color coordination of contemporary women's fashion collections, there were three main types of color scheme which were classified into seven detailed categories of color combination. First was the achromatic color & one chromatic separation color scheme which was classified into four categories of - black & white, black & grey, white & grey, and grey & grey - color combination. Second was the chromatic colors & one achromatic separation color scheme which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of achromatic & chromatic color & one achromatic separation color combination, and chromatic colors & one achromatic separation color combination. Third was chromatic colors and one chromatic separation color combination.

(2) The achromatic colors and one chromatic separation color scheme showed two phases of reinforcing the strong and modern image, or softening the hard and dull image of achromatic color combination. In color schemes which used more than two chromatic colors, the separation color frequently converted the tedious and monotonous fashion image, which caused by identical or similarity in color or tone harmony, into more attractive and interesting.

(3) In conclusion, through the various use and coordination of various color schemes, color harmony and separation colors, the separation color coordination in contemporary female fashion has been suggested the effective way of color combination which can lead the visual pleasure and the vitality along with the unity and the harmony. This characteristics can create various images and visual diversity for fashion. The types and the use of color scheme and separation color showed different trends in four collections.

**Key Words** : Separation color coordination(세퍼레이션 색채 코디네이션), Color harmony(색채조화), Separation color(분리색), Color scheme(배색)

## I. 연구의 목적

모든 조형물의 아름다움은 조형의 요소인 선, 형, 색, 면, 구조 등이 어울려 이루어지는 것이나 그 중에서도 시각적으로 가장 우선하는 것은 색채일 것이다.

색은 시각 정보의 중요한 구성인자로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드물다.<sup>1)</sup> 한 가지 색만으로는 인상도 약하고 감정을 움직이는 힘도 미약하다. 그러나 두 가지 이상의 색을 조합시킨 배색의 경우는 한 가지 색으로는 느낄 수 없는 효과를 야기하고 단색에서 느끼는 감정의 합 이상의 것으로 지각되는 감정과 이미지를 전달하여 복잡한 의미 전달이 가능해 지고 감정을 움직이는 힘도 강해진다.<sup>2)</sup>

배색은 보는 사람에게 유쾌하게 느껴질 때 그것들의 색은 조화되어 있다고 한다. 이러한 배색의 목적은 여러 가지 색을 의도적으로 조합시킴으로써 디자인의 전체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배색은 필연적으로 색의 3속성에서의 대비 관계를 강하게 하거나 약하게 함으로써 아름다운 효과를 얻으려고 한다. 색상과 명도, 채도의 관계를 조화시키는 방법에 따라 다양한 배색 변화를 얻을 수 있으며, 배색 효과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sup>3)</sup>

아름다운 색의 배색에 대한 느낌은 개인마다 차이가 크기 때문에, 조화의 느낌을 평준화하여 어떤 법칙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

러므로 인간이 색을 대할 때 심리적으로 느끼는 보편적인 감정을 바탕으로 하여 색채의 배색과 조화원리를 터득하는 것이 중요하다.<sup>4)</sup>

색채조화란 두 색 내지, 그 이상의 색들의 관련 효과의 가치평가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sup>5)</sup> 색상별로 고유의 다른 명도를 갖는다는 것은 자연계의 원리로 색채 조화에 중요한 개념이며 일본색연배색체계(PCCS)의 기본적인 구성 원리로서 중요시 되고 있는 점이다. 색채 조화의 일반원리는 첫째, 질서있는 계획에 따라 선택된 색채들은 조화가 이루어진다는 질서의 원리, 둘째, 명료한 배색 관계에서만 조화가 얻어진다는 비모호성의 원리, 셋째, 가장 가까운 색채끼리의 배색은 보는 사람에게 친근감을 주고 조화를 이룬다는 동류의 원리, 넷째, 배색된 색채들이 공통성을 가질 때 조화가 된다는 유사의 원리, 그리고 다섯째, 배색된 색채들의 상태와 속성이 서로 반대되면서도 모호하지 않을 때 조화 된다는 대비의 원리로 이러한 원리들은 각기 색상, 명도, 채도 별로 해당되며 이들이 적절히 결합되어 조화를 이루는 것이 보편적이다. 여러 색들 중 무채색은 거의 모든 색과 조화되므로 유채색과 적절히 배색하여 조화효과를 높일 수 있다.<sup>6)</sup> 색채의 배색조화는 색과 색 사이의 유사성에 기인하는 배색조화에서 차이성에 기인하는 대조성 배색까지가 기본이다. 이것은 색상의 관계인 색상 배색과 색조의 관계인 톤배색에도 해당된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색채의 조화를 크게 동일

색상 배색과 유사색상 배색, 대조 색상 배색의 세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sup>7)</sup>

색은 패션 코디네이션에서 옷맵시 감각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의복에서는 한 가지 이상의 색상이 배색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음으로 단색이 지니는 이미지보다는 배색에 따른 이미지가 중요하며 배색과 색채조화의 원리는 의복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패션에서의 색채 배합이나 조화에 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할 것이나 이와 관련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제껏 진행되어 온 패션과 색채와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패션 색채의 기호도나 유행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sup>8)9)10)11)</sup>, 패션 코디네이션에 관한 몇몇 연구들은 이미지나 메이크업에 관한 내용들이며<sup>12)13)14)</sup>, 패션 배색에 대한 연구<sup>15)</sup> 역시 색채 감성 이미지에 대한 것 일 뿐이다. 또한 최근 색채 코디네이션의 유형 파악에 관한 연구와 색채 코디네이션 유형들 중 동일 색상 배합에 의한 색채 코디네이션의 특성에 관한 연구<sup>16)</sup>가 진행되기는 하였으나 다른 색채 코디네이션의 특성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는 진행되지 못하였다.

색채 코디네이션은 '배색의 테크닉'을 의미하는 것으로, 색채 코디네이션에 대한 정확하고 일관된 규정은 없지만, 색상을 사용하는데 있어 새로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봄으로써 새로운 유행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sup>17)</sup> 사람들은 다양한 색채를 사용하여 의상을 코디네이트 하기 매우 부담스러워 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일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색채를 효과적으로 배합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고 때론 전문가들에게조차 어려운 일이 되기도 하기 때문 일 것이다. 색채 배합의 유형들 중 분리색에 의한 색채 배합은 원래의 배색을 살리면서 기존의 배색을 강조함으로써 새로운 패션 효과를 창출하는 색채 코디네이션의 한 방법이다.<sup>18)</sup> 이 유형은 의상에 여러 가지 색을 배색할 때 분리색을 하나 삽입하여 색채 간의 조화를 보다 명료하게 해 줌으로서 보다 손쉽게 다양한 색채를 효과적으로 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배색 방법이어서 다양한 색채의 사용에 의한 효과적인 패션 연출에 매우 유용한 색채 조화 방식이다.

본 연구는 2004/2005년 AW에서 2008/2009 AW 까지 4대 패션 중심지 - 파리, 밀란, 뉴욕, 런던 - 컬렉션에 나타난 패션 디자인을 중심으로 세퍼레이션 코디네이션의 배색과 색상 조화, 그리고 분리색의 유형을 파악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여 봄으로써 최신 여성 패션에서의 세퍼레이션 코디네이션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보다 다양한 패션에서의 색채사용과 더불어 효율적인 색채 배합과 조화를 통한 패션 연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다.

## II. 이론적 배경

### 1. 색채의 개념

#### 1) 색채의 종류

색은 크게 무채색과 유채색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

무채색은 흰색과 여러 단계의 회색 및 검정색에 속하는 색채를 느낄 수 없는 무색광각의 색으로, 가장 밝은 흰색에서부터 가장 어두운 검정색 사이에 들어가는 회색의 단계를 만들어 그 명암의 차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열할 수가 있다. 따라서 무채색의 구별은 밝고 어두운 정도의 차이로 나타나는 것으로 명도는 있지만 색상, 채도는 없는 것이다.<sup>19)20)</sup>

유채색은 순수한 무채색을 제외한 색감을 가지고 있는 모든 색으로 색채를 느끼는 유색광각을 말한다. 즉, 빨강, 주황, 노랑, 녹색, 파랑, 보라색 등과 그 중간색은 물론, 이러한 색들의 색감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모두 유채색으로 볼 수 있다.<sup>21)</sup>

#### 2) 색의 삼속성

색에는 색상, 명도, 채도라는 세 가지 요소에 의하여 색이 결정되며, 이것을 색의 삼속성이라고 한다<sup>22)</sup>. 색상(Hue)이란 빨강, 노랑, 파랑 등의 색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서로의 색을 다른 색과 구별하여 나타낸 것이다<sup>23)</sup>. 이 용어는 '색채'란 용어와 자주 혼동되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즉, 색상은 단일한 하나의 고유한 색을 의미하고 색채는

그것을 다양한 명도와 채도로 변화시킨 것이다<sup>24)</sup>. 명도(Value)란 색의 밝고 어두운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유채색의 명도를 나타내는 경우, 유채색의 밝음의 감각이 무채색의 기준과 동등한 곳의 명도기호를 사용한다.<sup>25)</sup> 채도(Chroma)는 색의 순수한 정도 즉, 색의 탁하고 선명한 강약의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색상환에 나타난 색은 순색으로 회색이 가해질수록 탁해진다.<sup>26)</sup> 채도의 단계는 색상마다 다른데, 중명도의 색상은 단계의 폭이 크고, 고명도는 채도 차의 폭이 좁다.<sup>27)28)</sup>

## 2. 색채톤에 따른 배색 형식

색채의 명암, 농담, 순수함, 탁함이라는 색감의 정도를 나타내는 색의 상태를 톤(tone)이라고 한다. 톤은 일상생활의 느낌으로 명도와 채도의 복합개념으로 색을 지각할 때는 두 가지를 함께 지각하게 된다.<sup>29)</sup> 톤의 분류는 미국의 ISCC-NBS와 일본 색채연구소가 제안한 톤 분류법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 톤 분류법은 색상과 톤 2가지로 색채를 다루기 때문에 색채조화에서 색의 3속성에 의한 것보다 수월하다고 볼 수 있다<sup>30)</sup>.

톤의 특징을 살린 배색형식을 분류하면 크게, 동일한 톤에 의한 조화, 유사한 톤에 의한 조화, 그리고 대조톤에 의한 조화로 분류될 수 있다. 동일톤의 배색은 색상이 다르더라도 채도의 공통성으로 인해 일정한 이미지를 정확히 전달하며 색채조화가 용이하다. 유사톤에 의한 색채조화란 가로의 채도축이나 세로의 명도축, 혹은 대각선상에 가까이 위치한 색조끼리의 배색으로 차분하며 안정되며 화합적이고 평화적으로 보이는 특징이 있다.<sup>31)</sup> 대조톤에 의한 색채조화는 상호의 톤이 떨어져 있는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명도나 채도 또는 명도와 채도 모두가 동시에 대조적 관계의 배색이다.<sup>32)</sup>

## 3. 세퍼레이션 색채 코디네이션의 개념과 특성

색채의 배색조화는 색상배색이나 톤 배색 모두에서 색이 가지고 있는 힘의 관계를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로 조정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색의 3 속성 중 어느 것 하나의 공통성 또는 차이성

을 명료하거나, 배색의 면적을 바꾸어 주종관계를 보다 명료하거나, 혹은 조화되기 어려운 색 사이에는 무채색이나 중성색을 넣어 분리한다.<sup>33)</sup>

세퍼레이션이란, ‘분리시킨다’ 혹은 ‘갈라놓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배색 상에서 여러 가지 색의 배색 사이에 분리색(Separation colour) 하나를 삽입하여 분리시킴으로서 그 색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sup>34)</sup> 이는 옅은색끼리의 배색에는 짙은색을 넣거나 짙은 색 배색 사이에는 옅은 색을 넣는 것 같이 분리색이 들어감으로써 리듬이 생기면서 동시에 새로운 조화가 이루어지는 배색방법이다.<sup>35)</sup> 분리색은 색상이 부조화의 느낌을 줄 경우 그 충격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사용되는 중간색상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조화를 꾀하며 명쾌감을 줄 수 있으므로 배색상 많이 이용되는 방법이다.<sup>36)</sup>

미국의 색채학자인 저어드(Judd)는 1955년 발표한 논문에서 기존의 색채 조화에 관한 연구들을 네가지의 색채조화의 원리로 정리하였다. 이 네가지는 규칙적으로 선택된 색은 질서있는 조화가 된다는 질서의 원리, 배색에서 색들이 어떤색이라도 공통성이 있으면 조화된다는 유사성의 원리, 자연계처럼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친근하게 느껴지는 색들의 배색은 조화가 잘 된다는 친숙함의 원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색의 관계가 애매하지 않고 명쾌한 것이 조화를 이룬다는 명료성의 원리이다.<sup>37)38)</sup> 또한 슈브롤(Chevreur)은 그의 색채조화론에서 세퍼레이션 컬러에 관하여 ‘검정색’은 색의 윤곽으로써 이상적이며 2색이 부조화일 때는 그 사이에 흰색 또는 검정색을 가하면 조화가 얻어진다’라고 하였다.<sup>39)</sup>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분리색에 의한 색채의 배색 조화는 저어드의 명료성의 원리에 포함될 수 있으며 동시에 슈브롤(Chevreur)이 제안한 색채조화론에서도 제안된 효과적인 색채의 배색 조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패션에서 세퍼레이션 색채 코디네이션은 두 색 또는 여러 가지의 배색에서 대비가 지나치게 강한 경우나 배색간의 관계가 애매한 경우, 색과 색 사이에 다른색을 하나 삽입하여 효과를 부드럽게 하여 주거나 충격을 완화시켜 주는 배색 방법이다. 이 방법은 원래의 배색을 살리면서 기존의 배색을 강조함으로

써 새로운 패션 효과를 창출하여 배색을 보다 매력적으로 하기 위한 중개 역할을 한다.<sup>40)</sup>

세퍼레이션 색채 코디네이션은 대조색상 코디네이션의 강렬함을 완화시키거나 동일색상 혹은 유사색상 코디네이션의 단조로움을 흥미 있게 하는 데 효과적으로 지나치게 강렬한 배색이나 비슷한 색상들끼리의 배색 사이에 분리색인 모노톤의 검정색이나 회색을 끼워 넣으면 색상 간의 개성을 돋보이게 하여 강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sup>41)42)</sup> 예를 들면, 보라색 재킷에 초록색 스커트를 코디네이트 시키고 이너 웨어로 흰색을 입어주는 것 같은 코디네이션이나 강렬한 원색끼리의 코디네이트에 흰색, 검정, 회색의 무채색을 배색시켜 부드럽게 만드는 배색,<sup>43)44)</sup> 또는 짙은 적색계와 올리브색이 조합처럼 두 색이 모두 어두운 색조이어서 어둡고 무거운 느낌이 들고 리듬감이 떨어질 경우 이 두 가지 색조 사이에 밝은 회색톤을 삽입하여 소프트, 하드의 톤 감각을 살리고 각 색상들의 조화에서 경쾌한 이미지를 살리는 경우 등이다.<sup>45)</sup> 이처럼 비슷한 색끼리의 배색에 끼워 넣는 분리색은 양쪽에 대해서 명쾌한 색으로 하고, 서로의 색을 눈에 띄도록 한다.

이 코디네이션은 세련미와 함께 차분한 효과를 연출하는 것 또한 이 코디네이션의 요령이며<sup>46)</sup> 서로 조화되지 않는 배색 사이에 조화시키는 분리색은 쌍방에 조화되기 쉬운 색으로 하는 것이 좋다<sup>47)</sup>

## II. 연구방법

### 1. 분석 자료의 선정기준 및 범위

본 연구의 대상은 발행연도가 비교적 연속성이 있으며, 발행 부수가 안정적이며, 세계 유행의 흐름 속에서 트렌드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는 패션 전문 잡지인 동시에 해외 컬렉션을 가장 많이 보여주고 있는 ‘컬렉션’지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자료의 범위는 ‘04 SS부터 ‘08’0/9 A/W까지 총 5년 동안의 기간으로 정하였다. 표집 방법은 ‘컬렉션(COLLECTIONS)’지에 나타난 디자인들 중 4대 패션 중심지인 파리, 밀라노, 뉴욕, 런던 컬렉션에 나타난 디자인들만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S/S 3권씩, A/W 3권씩으로 총 30권에 나타난 세퍼레이션 색채 코디네이션 265개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sup>48)</sup>

### 2. 분석대상 선정 기준

본 연구에 사용된 분석 대상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우선, 색상배합은 세가지 이상의 색상 배합과 세 가지 이상의 의상 아이템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를 우선적으로 선택하였다. 그러나 소재에 조직이나 문양 등으로 인하여 혹은 의복에 붙어 있는 구슬이나 비즈, 그리고 소재의 특성상 특정한 색으로 파악하기 힘들거나 모호한 경우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3. 측정 도구

측정 도구는 현재 우리나라의 공업 규격(KS A 0062-71 색의 상속성에 의한 표시방법)에 준하여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섬유 산업체나 교육계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섬유색채를 기준으로 수록하고 있는 한국섬유표준색도감을 사용하였다.

### 4. 연구의 절차

본 연구의 순서와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연구의 단계와 과정은 연구자 외 의상 전공자 2인이 함께 참여하였다.

(1) 본 연구에 사용될 색상과 톤의 유형별 선정은 한국섬유표준색도감에 제시된 색들과 명도, 채도들을 기준으로 하여 여러 차례의 예비 조사를 거쳐 최종 기준들을 선택하였다;

첫째, 연구에 사용될 유채색의 선정을 위해 27권의 분석대상 중 무작위로 6권을 선정하여 그곳에 나타난 디자인들을 중심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해 본 결과 유채색은 빨간색 계열, 청색 계열, 녹색 계열(초록색과 카키), 갈색 계열(연갈색과 중.진갈색), 노란색 계열과 보라색 계열 그리고 기타로, 총 7개 유형의 유채색으로 분류하여 살펴 보기로 하였다.

무채색의 경우는 한국섬유표준색도감에 제시된 흰색에서 검정까지의 단계 모두를 무채색으로 선정하였으나 흰색과 검정 그리고 회색의 3개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둘째, 분석에 사용될 톤의 단계는 한국섬유표준색도감에 나타난 54개의 유채색들 중 무작위로 7개의 유채색을 선택하여 각 색상들의 등색상면 분포를 중심으로 동일, 유사. 대조의 3단계 톤차이를 확실하게 지각할 수 있는 톤의 단계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동일톤은 명도 10도에서 채도 010~020, 유사톤은 명도 20도~50, 채도 020~080, 대조톤은 명도 60에서 그 이상, 채도 100에서 그 이상의 범위로 설정되었다. 이때, 무채색의 경우는 명도만 존재하는 것임으로 명도만을 중심으로 톤의 분류를 적용하였다.

### 5. 자료분석

세퍼레이션 코디네이션 분류에 참여한 분석자간의 일치도를 검증한 결과 0.94로 나타났다. 자료 처리 방법은 색채 코디네이션의 유형별 빈도와 컬렉션별 색채 코디네이션 유형의 양적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분석을 사용하였고 이와 더불어 코디네이션의 특성 파악을 위하여 질적 분석을 병행하였다.

### 6. 용어정의

본 연구에 사용된 용어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색상 - 하나의 단일 색으로 빨강(R), 노랑(Y), 녹색(G), 청색(B), 자주(P), 등의 다른 색과 구별되는 색 이름을 의미한다.

(2) 색채 - 색상, 명도, 채도를 모두 합한 색을 의미한다.

(3) 동일톤 - 유채색에서는 두 색의 명도차가 10 이내일 때와 채도차가 010-020일 경우에, 그리고 무채색에서의 배색에서 명도차가 10 이내의 경우.

(4) 유사톤 - 유채색에서는 두 색의 명도차가 20에서 50까지, 채도차가 020에서 080까지일 경우에, 무채색의 배색에서는 명도차가 20에서 50 사이에 있을 경우.

(5) 대조톤 - 유채색에서는 두 색의 명도차가 60부터 그 이상일 경우와 채도차가 100에서 그 이상일 경우에, 무채색의 배색에서는 명도차가 60 이상일 경우.

(6) 배색 - 두 가지 이상의 색채를 조합시킨 것.

(7) 분리색(세퍼레이션 컬러) - 의상에 여러 가지 색을 배색할 때 색채간의 조화를 보다 명료하게 하여 주는 색.

(8) 세퍼레이션 코디네이션 - 의상의 색채 조화 효과를 위해 분리색 하나를 사용한 배색

(9) 색상 조화 - 두가지 이상의 색상들의 관련 효과로 본 연구에서는 동일색상, 유사 색상, 대조색상 및 무채색과 유채색 배합에 의한 색상조화를 의미.

## III. 연구결과

'04 SS에서 '08/'09 AW 까지 Collection지에 나타난 세퍼레이션 색채 코디네이션의 유형과 특징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 1. 세퍼레이션 색채 코디네이션의 유형 및 유형별 발생 빈도

#### 1) 세퍼레이션 색채 코디네이션의 배색 유형과 유형별 발생빈도

'04 SS에서 '08/'09 AW 까지 Collection지에 나타난 세퍼레이션 색채 코디네이션의 배색 유형과 유형별 발생빈도는 <표 1>에 나타나 있다.

<표 1> 세퍼레이션 색채 코디네이션의 배색 조화 유형별 발생 빈도 및 빈도율

배색 유형	색채의 배색 유형						합계 (%)	
	2개 이상의 무채색/1 유채색				2개 이상 유채/1 무채색			3개 이상 유채색
	검정+흰색	검정+회색	회색+흰색	회색+회색	유+무/유 분리색	유/무 분리색		
빈도	67	20	18	9	13	90	265 (100%)	
빈도율 (%)	(23.0%)	(7.6%)	(10.9%)	(3.4%)	(4.9%)	(33.9%)		
	114(43.0%)				103(38.9%)		58 (21.9%)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배색 유형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일곱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배색 유형은 두 가지 이상의 무채색들의 배합에 유채색 하나를 분리색으로 사용한 것(43.0%)으로, 이 유형은 검정과 흰색(23.0%), 회색과 흰색(10.9%), 검정과 회색(7.6%),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색과 회색(3.5%)의 네 가지 유형 및 발생빈도 순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나타난 유형은 무채색 하나에 유채색이 둘 이상 사용된 배색 유형으로(38.9%), 이 유형은 시각적 효과를 중심으로 볼 때 유채색과 무채색 색상 조화에 유채색이 분리색으로 작용하는 경우와 유채색 끼리의 배합에 무채색 하나가 분리색으로 작용된 경우(33.9%)의 두가지 양상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셋째, 유채색끼리의 배합에 유채색을 분리색으로 사용한 유채색 끼리의 배색 유형(21.9%)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곱 가지 배색 유형들의 발생 빈도율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유채색 끼리의 배합에 무채색 하나를 분리색으로 사용한 배색 유형이 (이하 '유+유/무'로 지칭) 38.9%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은 검정과 흰색에 유채색 하나를 분리색으로 사용한 배색(이하 '유+유/무'로 지칭)으로 23.0% , 유채색 끼리의 배색(이하 '유+유/유'로 지칭)이 21.9%, 회색과 흰색의 배색에 유채색 하나를 분리색으로 사용한 배색(이하 '회색+흰색/유'로 지칭)이 10.9%, 검정과 회색에 유채색 하나를 분리색으로 사용한 배색(이하 '검정+회색/유'로 지칭)이 7.6%, 무채색과 유채색 배합에 유채색 하나를 분리색으로 사용한 배색(이하 '무+유/유'로 지칭)이 4.9%, 그 마지막으로 회색과 흰색의 배색에 유채색 하나를 분리색으로 사용한 배색(이하 '회색+흰색/유'로 지칭)이 3.4%의

비율순으로 나타났다.

2) 세퍼레이션 색채 코디네이션의 분리색 유형과 유형별 발생빈도

'04 SS에서 '08/'09 AW 까지 Collection지에 나타난 세퍼레이션 색채 코디네이션에 사용된 분리색의 유형과 유형별 빈도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에서처럼 분리색은 계 유채색과 무채색 계열로 분류되었는데 유채색(66.0%)은 무채색(34.0%)에 비해 거의 두 배에 가까운 비율로 나타났다. 무채색의 경우는 검정과 흰색이 유사한 정도로 사용되었고 회색은 매우 적게 사용 나타났다. 유채색의 경우는 갈색 계열의 색상이 가장 많이 보여지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녹색계열의 색상이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빨강, 파랑, 보라색 그리고 노랑색 계열,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다.

색상 유형별로 살펴보면, 갈색계열(22.6%)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은 녹색(12.4%), 검정(15.8%), 흰색(12.5%), 빨강색(10.6%), 청색(7.2%), 보라색(6.0%), 회색(5.7%), 그리고 노랑색 계열(4.2%)의 순이었다.

3) 세퍼레이션 색채 코디네이션의 색상조화 유형 및 톤 유형별 발생빈도

'04 SS에서 '08/'09 AW 까지 Collection지에 나타난 세퍼레이션 색채 코디네이션에 사용된 색상조화의 유형과 톤 유형별 발생빈도를 살펴본 결과 <표 2>에 나타나 있듯이 색상조화의 유형은 동일 색상조화(65.7%)가 다른 유형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빈도율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는 배색 유형들 중 두 번

<표 2> 세퍼레이션 색채 코디네이션의 분리색 유형 및 유형별 빈도 및 빈도율

분리색 빈도	분리색 유형												합계
	무채색			유채색									
	흰색	회색	검정	갈색계열		청색계열	녹색계열		빨강계열	노랑계열	보라계열	기타	
			연	진.중		카키	초록						
빈도 및 빈도율	33 (12.5)	15 (5.7)	42 (15.8)	35 (13.2)	25 (9.4)	19 (7.2)	16 (6.0)	17 (6.4)	28 (10.6)	11 (4.2)	16 (6.0)	8 (3.0)	265 (100)
	90(34.0)			175(66.0)									

째로 많이 나타난 '무+무/유' 배색 유형이 무채색에 의한 동일색상 조화(43.8%)에 속한데다가 유채색에 의한 동일색상 조화(21.9%)도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난 색상 조화 유형이었기 때문이었다. 그 다음은 대조색상(17.0%), 유사색상 조화(12.8%), 그리고 마지막인 무채색과 유채색 조화(4.5%)도 다소 나타났다. 톤 유형을 살펴보면 대조톤에 의한 색상조화((53.9%)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은 유사톤(33.6%), 그리고 동일톤 배합에 의한 색상배합(12.6%)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세퍼레이션 색채 코디네이션의 색채 배합 유형별 특징**

'04 SS에서 '08/'09 AW 까지 Collection지에 나타난 세퍼레이션 색채 코디네이션의 배색 유형별 색상 조화와 분리색 그리고 색채톤의 유형별 빈도를 파악한 결과는 <표 4>, <표 5>, <표 6>, <표 7>에 제

시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들과 <표 1>, <표 2>, <표 3>의 결과, 그리고 컬렉션에 나타난 디자인 상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모두 종합하여 최근 5년간 4개 패션 중심도시에 나타난 세퍼레이션 색채 코디네이션의 특성을 파악한 결과는 아래와 같이 나타났다.

**1) 세퍼레이션 색채 코디네이션의 무채색 중심의 배색 유형별 특성**

'04 SS에서 '08/'09 AW 까지 Collections지에 나타난 세퍼레이션 색채 코디네이션의 유형들 중 무채색끼리의 색채 배합에 유채색 하나를 분리색으로 사용한 색채 배색의 유형별 분리색과 색상조화의 톤 유형별 발생빈도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에 나타난 결과와 디자인 상에 나타난 특성을 종합하여 2가지 이상의 무채색을 사용하고 유채색 1개를 분리색으로 사용한 배색 유형별 특성은 다음과 같았다.:

**<표 3> 세퍼레이션 색채 코디네이션의 색상 조화와 색상조화의 톤 유형별 발생 빈도 및 빈도율**

색상조화 및 톤 빈도	색상 조화 유형					색상톤			합계 (%)
	동일		유사	대조	유채색+무채색	동일	유사	대조	
	무채색	유채색							
빈도 및 빈도율 (%)	116 (43.8)	58 (21.9)	34 (12.8)	45 (17.0)	12 (4.5)	33 (12.5)	89 (33.6)	14 (5.3)	265 (100.00)
	174(65.7)		265(100.00)			265(100.00)			

**<표 4> 세퍼레이션 색채 코디네이션의 무+무/유 배색 유형별 분리색과 톤 유형별 발생 빈도 및 빈도율**

색채 배색 유형 빈도 (%)	분리색(유채색)								색채톤			합계 (%)	
	갈색계열		청색 계열	녹색계열		빨강 계열	노랑 계열	보라 계열	기 타	동 일	유 사		대 조
	연	진.중		카키	초록								
검정 + 흰색	16 (23.9)	10 (14.9)	4 (6.0)	9 (13.4)	9 (13.4)	12 (17.9)	3 (4.5)	3 (4.5)	1 (1.5)	0 (0.0)	0 (0.0)	67 (100)	67 (100.0)
검정 + 회색	2 (10.0)	2 (10.0)	3 (15.0)	1 (5)	3 (15)	4 (20.0)	3 (15.0)	0 (0/0)	2 (10.0)	0 (0.0)	13 (65.0)	7 (35.0)	20 (100.0)
흰색 + 회색	3 (16.7)	3 (16.7)	5 (27.7)	0 (0.0)	2 (11.1)	2 (11.1)	1 (5.6)	1 (5.6)	1 (5.6)	0 (0.0)	10 (55.6)	8 (44.4)	18 (100.0)
회색 + 회색	3 (33.4)	2 (22.2)	1 (11.1)	0 (0.0)	0 (0.0)	1 (11.1)	2 (22.2)	0 (0.0)	0 (0.0)	2 (22.2)	4 (44.5)	3 (33.3)	11 (100.0)



① ‘검정+ 흰색/유’ 유형은 무채색 배색에 유채색 하나를 분리색으로 사용한 배색 유형들 네 가지 중 가장 많이 나타난 유형이었다. 유채색의 분리색은 갈색계열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그 다음은 녹색계열, 빨강색, 청색과 노랑, 보라계열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나타난 검정과 흰색에 연갈색의 분리색을 사용한 경우는 <사진 1><sup>49)</sup>처럼 부드러우면서도 편안한 우아함이 돋보이는 세련미를 보여주고 중간이나 진한 갈색을 사용한 경우에는 중후한 세련미를 보여주면서 검정과 흰색만의 배색으로는 강렬하고 다소 딱딱해 보일 수 있는 분위기를 전환시켜주고 있었다.<사진2><sup>50)</sup> 녹색계열의 경우 카키색과 초록색 계열의 색상들이 동일한 빈도로 나타났는데, 카키색 계열의 경우는 다소 캐주얼하면서도 편안함을 더해주고 <사진 3><sup>51)</sup>, 초록색은 생동감과 경쾌함을 더하면서도 흑.백 조화의 분명하고 강렬함을 유지하도록 나타났다.<사진 4><sup>52)</sup> 빨강색 계열의 분리색은 대부분이 밝고 채도가 높은 비비드한 색상들이 배색되어 흑.백 조화에서 볼 수 있는 강렬하고 분명하면서도 모던한 이미지를 더욱 강조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사진 5><sup>53)</sup>

이처럼 흑.백의 배색에 유채색의 분리색 하나를 사용하는 세퍼레이션 코디네이션은 흑.백 배색 자체가 지닌 강렬하면서 모던하고 분명한 이미지를 살리면서도 분명한 유채색상의 이미지를 더해 의상에 보다 흥미를 더해주는 경우와 지나치게 경직되거나 딱딱해 보일 수 있는 분위기를 다소 유연하거나 부드러운 혹은 가볍고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 하도록 나타나고 있었다.

② ‘검정+회색/유’ 유형은 유사톤에 의한 톤배합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고 분리색은 빨강계열,

갈색과 녹색 계열, 청색과 노랑색 계열 그리고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사톤에 의한 배색 유형은 다소 무겁고 지루해 보이기 쉬운 이미지를 비비드한 빨강색 계열의 색 더함으로써 생동감 있게 만드는 동시에 시선을 잡을 수 있는 포커스를 마련해 주고 있었고<사진 6><sup>54)</sup> 대조톤에 의한 배색은 검정과 회색 배색의 도시적 세련미를 유지하면서도 무미건조해 보이기 쉬운 이미지를 우아하고 부드럽게 전환시켜 주고 있었다.<사진 7><sup>55)</sup>

③ ‘회색+흰색/유’ 배색 유형은 주로 중명도 정도의 회색에 흰색이 배색되고 갈색이나 청색 계열의 유채색이 분리색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이 때 분리색들은 주로 명도와 채도가 높은 유채색들로 흰색과 중명도의 회색 배색에서 보여지는 애매함을 보완하여 시각적으로 분명하고 명쾌하도록 배색되어 있었다.<사진 8><sup>56)</sup>

④ ‘색+회색/유’ 배색의 경우는 매우 낮은 빈도로 나타났다. 이 유형은 회색 색상간의 톤 차이를 중심으로 톤 차이가 많을 경우에는 사용된 회색과 유사한 톤의 유채색을 분리색으로 삽입하고 차이가 적을 경우엔 사용된 회색과 차이가 분명한 톤의 유채색을 사용함으로써 회색끼리의 배색에서의 수수함이나 밋밋함을 흥미 있도록 만들어 주면서도 회색 자체가 지닌 부드럽고 편안함은 유지하고 있었다.<사진 9><sup>57)</sup>

2) 세퍼레이션 색채 코디네이션의 유채색 중심의 배색 유형별 특성

‘04 SS에서 ‘08/‘09 AW 까지 Collection지에 나타난 세퍼레이션 색채 코디네이션의 유형들 중 두 개 이상의 유채색을 사용한 배색 유형별 분리색과

<표 5> 세퍼레이션 색채 코디네이션의 ‘유+ 무/유’ 유형의 분리색과 톤유형별 발생 빈도와 빈도를

배색 유형 및 빈도	분리색 유형									색상톤		
	유채색									동일	유사	대조
	갈색계열		청색계열	녹색계열		빨강계열	노랑계열	보라계열	기타			
유채색+무채색/유채색	4 (30.8)	2 (15.4)		2 (15.4)	1 (7.7)					0 (0.0)	2 (15.4)	2 (15.4)
	6(46.2)		1(7.7)									
합계(%)	13(100.0)									13(100.0)		

색상조화의 톤 유형별 발생빈도는 <표 5>, <표 6>, <표 7>에 나타나 있다.

<표 5>에 나타나 있듯이 ‘무+유/유’ 배색 유형은 주로 대조톤에 의한 색채조화(42.9%)가 주로 사용되었고 그 다음은 동일톤(30.8%) 그리고 유사톤(23.1%)의 순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분리색은 갈색 계열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그 다음은 유사한 정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와 디자인 상에 나타난 특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배색 유형은 유채색과 무채색간의 톤 차이가 적은 유사톤이나 동일톤에 의한 배색으로 인하여 색상간의 구분이 분명치 않을 경우 색채톤이나 색상이 전혀 다른 분리색을 사용하여 모호한 색채 조화를 보다 분명히 해 주거나 대조톤이 사용되었으나 배색 자체의 재미나 변화가 모호한 경우 배색의 흥미를 더해 주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었다.<사진 10><sup>58)</sup>

<표 6>에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유+유/무’ 배색 유형은 파악된 7가지 유형들 중 가장 많이 사용된 유형으로 색상조화는 동일조화(42.2%)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그와 유사한 정도로 대조 조화(34.4%)가 그리고 유사 조화(23.3%)의 순으로 사용되었다. 분리색은 검정(47.8%), 흰색(35.6%) 그리고

회색(16.7%)의 순으로 나타났고, 톤 유형은 대조톤(44.4%), 유사톤(37.8%) 그리고 동일톤(17.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와 디자인 상에 나타난 특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유형은 동일 색상 조화나 동일톤에 의한 색채 조화에서 나타날 수 있는 평범함이나 무난함을 무채색을 삽입하여 줌으로써 디자인에 재미를 더해 주기도 하고<사진 11><sup>59)</sup>, 유사색상조화나 다소 모호한 색상배합으로 인한 애매함을 분명하게 해 주기도 하며<사진 12><sup>60)</sup>, 또한 대조 색상 조화로 인한 지나친 강렬함을 다소 완화시켜 주면서도 세련됨과 생동감을 살려주고 있었다.<사진 13><sup>61)</sup>

<표 7>에 나타난 ‘유+유/유’ 배색 형식의 경우, 색상조화는 동일색상 조화(43.8%)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대조 조화(29.2%)와 유사 조화(27.1%)는 거의 동일한 정도로 사용하였다. 분리색은 갈색계열(39.6%)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그 다음은 보라색 계열(22.9%) 그리고 녹색(16.7%), 빨강색(14.6%), 청색(8.3%), 노랑색 계열(6.3%) 그리고 기타(6.3%)의 순으로 사용되었다. 색상 조화의 톤 유형은 유사톤(52.1%)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그 다음 대조톤(25.0%)과 동일톤(27.1%)은 유사한 정도로 사용되

<표 6> 세퍼레이션 색채 코디네이션의 ‘유+유/무’ 유형의 분리색, 색상조화, 톤 유형별 발생 빈도와 빈도율

배색 유형 및 빈도	색채		색상 조화 유형					분리색 유형			색상조화의 톤유형		
			동일		유사	대조	무채색+유채색	무채색			동일	유사	대조
	무채색	유채색	흰색	회색				검정					
유채색끼리/무 (%)	0 (0.0)	38 (42.2)	21 (23.3)	31 (34.4)	0 (0.0)	32 (35.6)	15 (16.7)	43 (47.8)	16 (17.8)	34 (37.8)	40 (44.4)		
	90(100.0)					90(100.0)			90(100.0)				

<표 7> 세퍼레이션 색채 코디네이션의 유+유/유 유형의 분리색과 색상조화와 톤 유형별 발생 빈도와 빈도율

배색 유형 및 빈도	색채				색상 조화									분리색 (유채색)				색상톤		
	유채색 동일	유사	대조	무채+유채	갈색계열		청색계열	녹색계열		빨강계열	노랑계열	보라계열	기타	동일	유사	대조				
					연	중.진		카키	초록											
유채색끼리/유 (%)	21 (43.8)	13 (27.1)	14 (29.2)	0 (0.0)	13 (27.1)	6 (12.5)	4 (8.3)	5 (10.4)	3 (6.3)	7 (14.6)	3 (6.3)	11 (22.9)	3 (6.3)	13 (27.1)	25 (52.1)	12 (25.0)				
합계 (%)	48(100.0)				48(100.0)									48(100.0)						

었다. 이러한 결과와 디자인에 나타난 특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유형은 유사 색상조화를 중심으로 배색되어 다소 애매하거나 불분명한 색상간의 관계를 톤 차이가 분명한 또다른 유채색을 분리색으로 사용하여 색상들간의 관계를 분명히 하여 주거나 대조색상조화가 사용되어 지나친 화려함이나 극단적인 대조가 야기되었을 때 갈색이나 보라색 계열의 중성색을 삽입하여 충격을 완화하거나 부드럽고 세련되도록 하여 주거나 <사진 14><sup>62)</sup> 또는 동일 색상 조화가 사용되어 단조로울 경우 주로 갈색 계열의 분리색을 사용하여 전반적인 색채 조화감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보다 세련되고 통일감이 우수면서도 시각적으로도 흥미있는 디자인을 보여 주고 있었다.<사진 15><sup>63)</sup>

이 유형은 다른 어떤 유형보다도 색상의 사용이 다양할 수 있는 배색임으로 다양한 색상 사용으로 인하여 흥미있고 다양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 3. 컬렉션 도시별 세퍼레이션 색채 코디네이션의 배색 유형별 차이

'04 SS에서 '08/'09 AW 까지 Collection지에 나타난 컬렉션 도시별 세퍼레이션 색채코디네이션의 배색 유형과 분리색 유형 그리고 색상조화와 톤 유형의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는 <표 8>, <표 9>,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 1) 컬렉션 도시별 세퍼레이션 색채코디네이션의 배색 유형별 차이

각 컬렉션 도시별 세퍼레이션 색채코디네이션의

배색 유형별 발생 빈도와 빈도율을 살펴본 결과, <표 8>에 나타나 있듯이 컬렉션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 빈도율 순위를 살펴보면, 뉴욕에서는 '유+유/유' 배색 유형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는 '유+유/무' 유형이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나, 그 밖의 세 도시에서는 '유+유/무' 유형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는 '검정+흰색/유' 유형이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전반적인 발생 빈도율 순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밀란과 파리, 런던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뉴욕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으나, 발생 빈도율을 중심으로 보면 컬렉션별로 색채 배색의 유형에 따라 각기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 2) 컬렉션 도시별 세퍼레이션 색채코디네이션의 분리색 유형별 차이

컬렉션 도시별 세퍼레이션 색채코디네이션의 분리색 유형별 발생 빈도와 빈도율을 살펴본 결과 <표 9>에 나타나 있듯이 분리색의 유형별 발생 비율과 발생 양상은 도시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뉴욕은 갈색과 빨강색 계열이 동일한 비율(17.78%)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그 다음은 녹색(13.6%)과 보라 계열(11.1%)이나 그 이외의 분리색들은 유사한 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밀란은 흰색(13.3%)과 검정(13.3%), 녹색 계열(13.3%)이 동일한 비율로 그 다음은 갈색 계열(12.1%)과 보라 계열(9.6%) 순으로 나타났고 그 밖의 다른 유채색의 분리색들은 유사한 정도의 발생 비율로 나타나 있었으나 흰색(1.2%)은 단 1번만 사

<표 8> 세퍼레이션 색채 코디네이션의 도시별 배색 유형별 발생 빈도와 빈도율

도시별 빈도(%)	색채 배색 유형							합계 (%)
	검정+흰색	검정+회색	흰색+회색	회색+회색	유+무/유	유+유/무	유+유/유	
뉴욕	10 (22.2)	2 (4.4)	5 (11.1)	2 (4.4)	1 (2.2)	11 (24.4)	14 (31.1)	45 (100.0)
밀란	25 (26.0)	7 (8.4)	4 (4.8)	2 (2.4)	4 (4.2)	24 (28.9)	17 (20.5)	83 (100.0)
파리	26 (27.1)	4 (4.2)	7 (7.3)	4 (4.3)	6 (6.3)	37 (38.5)	12 (12.5)	96 (100.0)
런던	6 (14.6)	7 (17.1)	2 (4.9)	1 (2.4)	2 (4.9)	18 (43.9)	5 (12.2)	41 (100.0)

용되어 거의 사용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파리는 갈색 계열의 색상(28.1%)이 두드러지게 많이 사용되었고 그 다음에는 검정(17.7%), 흰색(12.5%), 녹색(13.3%)과 빨강색 계열(10.4%) 등이 많이 보였다. 마지막으로 런던은 검정(24.4%)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은 흰색(14.6%)과 갈색(14.6%), 녹색(14.6%)과 청색 계열(12.2%)의 색상이 거의 동일한 비율로 많이 나타났으며, 그 밖의 색상들은 매우 낮은 빈도율을 보이고 있었다.

3) 컬렉션 도시별 세퍼레이션 색채코디네이션의 색상 조화 유형별 차이

컬렉션 도시별 세퍼레이션 색채코디네이션의 색상 조화와 톤 유형별 발생 빈도와 빈도율은 <표 10>

에 제시되어 있다. 컬렉션별 색상조화의 유형은 네 도시 모두에서 무채색에 의한 동일 색상 조화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은 유채색에 의한 동일 색상조화로 유채색과 무채색에 의한 색상 조화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 유사 색상 조화와 대조 색상 조화는 컬렉션별로 발생 비율 순위에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뉴욕은 유사, 대조의 순으로 밀란은 유사와 대조가 동일하게, 파리와 런던은 대조, 유사의 순으로 나타났다. 톤 유형은 뉴욕은 유사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그 다음은 대조, 동일한 순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세 도시에서 모두 대조, 유사, 동일톤의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 비율은 모든 컬렉션에서 무채색에 의한 동일색상 조화는 유사한 정도로 나타났고 유채색에 의한 동일 색상 조화는 밀란(39.5%)을 제

<표 9> 세퍼레이션 색채 코디네이션의 도시별 분리색 유형별 발생 빈도와 빈도율

도시별 빈도 (%)	분리색 유형(%)												합계 (%)
	무채색(%)			유채색(%)									
	흰색	회색	검정	갈색계열		청색 계열	녹색계열		빨강색 계열	노랑색 계열	보라색 계열	기타	
			연	중+진		카키	초록						
뉴욕	4 (8.9)	4 (8.9)	4 (8.9)	4 (8.9)	4 (8.9)	2 (4.4)	2 (4.4)	4 (8.9)	8 (17.8)	2 (4.4)	5 (11.1)	2 (4.4)	45 (100.0)
밀란	11 (13.3)	1 (1.2)	11 (13.3)	1 (1.0)	9 (10.8)	7 (8.4)	4 (4.8)	7 (8.4)	6 (7.2)	4 (4.8)	8 (9.6)	4 (4.8)	83 (100.0)
파리	12 (12.5)	8 (8.3)	17 (17.7)	17 (17.7)	10 (10.4)	5 (5.2)	8 (8.3)	3 (3.1)	10 (10.4)	5 (5.2)	1 (1.0)	0 (0.0)	96 (100.0)
런던	6 (14.6)	2 (4.9)	10 (24.4)	4 (9.8)	2 (4.9)	5 (12.2)	3 (7.3)	3 (7.3)	3 (7.3)	0 (0.00)	2 (4.9)	2 (4.9)	41 (100.0)

<표 10> 세퍼레이션 색채 코디네이션의 도시별 색상 조화와 톤 유형별 발생 빈도와 빈도율

도시별 빈도 (%)	색상 조화					색채톤			합계 (%)
	동일색상배합		유사색상	대조색상	유+무색상	동일	유사	대조	
	무	유							
뉴욕	19 (42.2)	9 (20.00)	9 (20.0)	6 (13.3)	2 (4.4)	8 (17.8)	19 (42.2)	18 (40.0)	45 (100.0)
밀란	40 (48.2)	15 (39.5)	13 (15.7)	13 (15.7)	2 (2.4)	4 (4.8)	33 (39.8)	46 (55.4)	83 (100.0)
파리	38 (43.7)	24 (27.6)	10 (11.5)	12 (13.8)	3 (3.4)	8 (9.2)	29 (33.3)	50 (57.5)	87 (100.0)
런던	17 (41.5)	10 (24.4)	4 (9.8)	9 (21.9)	1 (2.4)	10 (24.4)	11 (26.8)	20 (48.8)	41 (100.0)

외하면 20%선에서 그리고 유사색상 조화는 10%에서 20% 이내 정도 선에서 그리고 유채색과 무채색 색상 조화는 2%에서 5%정도의 선에서 유사한 정도로 나타났다.

이처럼 컬렉션별로 색상 조화 유형별 발생비율과 양상은 컬렉션별로 커다란 차이가 없었으나 톤 유형별 발생 비율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IV. 결론

'04 SS 에서 08/'09 AW 까지 5년간 4대 컬렉션에 나타난 세퍼레이션 색채 코디네이션의 특성을 파악한 연구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세퍼레이션 코디네이션의 색채 배색과 색상 조화와 톤 그리고 분리색의 유형

① 세퍼레이션 코디네이션의 색채 배색의 유형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7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첫째 유형은 2개 이상의 무채색 배합에 유채색 하나를 분리색을 사용한 경우로 이 유형에서의 무채색 배합은 검정과 흰색, 검정과 회색, 회색과 흰색 그리고 회색끼리의 배합의 네 가지 유형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유채색이 둘 이상 사용되고 무채색 하나가 사용된 유형으로 이 경우는 시각적 효과를 중심으로 판단한 결과 무채색과 유채색 배색에 유채색을 분리색으로 사용된 유형과 유채색이 둘 이상 사용되고 무채색 하나를 분리색으로 사용한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셋째, 유채색끼리의 배합에 유채색을 분리색으로 사용한 유채색들로만 배색된 유형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발생빈도율을 살펴본 결과 '유+유/무' 배색 유형(38.9%), '검정+흰색/유' 배색(23.0%), 유채색끼리의 배색(21.9%), '회색+흰색/유' 배색(10.9%), '검정+회색/유' 배색(7.6%), '무+유/유' 배색(4.9%),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색+흰색/유' 배색 유형(3.4%)으로 순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② 세퍼레이션 코디네이션의 분리색은 9가지 유형으로 파악되었고 갈색(22.6%),그 다음은 녹색(12.4%),

검정(15.8%), 흰색(12.5%), 빨강색(10.6%), 청색(7.2%), 보라색(6.0%),회색(5.7%), 그리고 노랑색 계열(4.2%)의 순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③ 세퍼레이션 코디네이션의 색상조화는 5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는데, 무채색에 의한 동일색상 조화(43.8%), 유채색에 의한 동일색상 조화(21.9%), 대조색상(17.0%), 유사색상 조화(12.8%), 무채색과 유채색 조화(4.5%)의 순으로 나타났고 색상 조화에 사용된 톤유형은 대조톤(53.9%), 유사톤(33.6%), 동일톤(12.6%)의 순으로 나타났다.

##### 2. 세퍼레이션 색채 코디네이션의 배색 유형별 특징

① 2가지 이상의 무채색 배합에 유채색 하나를 분리색으로 사용한 배색의 유형별 특징은 첫째, '검정+흰색/유'유형은 선명한 유채색을 분리색으로 사용하여 흑,백 배색 자체가 지닌 강렬하면서도 모던하고 분명한 이미지를 살리면서도 의상에 보다 흥미를 더해주는 경우와 부드러운 색채톤의 유채색을 사용하여 지나치게 경직되거나 딱딱해 보일 수 있는 분위기를 다소 유연하거나 부드러운 혹은 가볍고 편안한 분위기를 나타내도록 도와주고 있었다.

둘째, '검정+회색/유' 유형은 주로 유사톤에 의한 색채 배합이 가장 많이 사용되어 검정과 회색 배색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소 무겁고 지루해 보이기 쉬운 이미지를 선명하거나 강렬한 톤의 유채색을 더해줌으로써 생동감 있게 만드는 동시에 시선을 잡을 수 있는 포커스를 마련해 주고 있었고 대조톤에 의한 배색은 검정과 회색 배색의 도시적 세련미를 유지하면서도 무미건조해 보이기 쉬운 이미지를 우아하고 부드럽게 전환시켜 주고 있었다.

셋째, '회색+흰색/유'의 배색은 주로 중명도 정도의 회색을 사용하고 분리색은 주로 고명도,고채도의 유채색들이 사용되어 흰색과 중명도의 회색 배색에서 보여지는 애매함을 보완하여 시각적으로 분명하고 명쾌하도록 배색되어 있었다.

넷째,'회색+회색/유'의 경우는 매우 적게 나타났는데, 회색 색상간의 톤 차이가 많을 경우에는 사용된 회색과 유사한 톤의 유채색을 분리색으로 삽입하고 차이가 적을 경우엔 사용된 회색과 차이가 분명한

톤의 유채색을 사용함으로써 회색끼리의 배색에서의 수수함이나 밋밋함을 흥미있게 만들어 주면서도 회색 자체가 지닌 부드럽고 편안함은 유지하고 있었다.

이처럼 무채색들의 배합에 유채색을 분리색으로 사용한 배색 유형들은 주로 무채색들끼리의 배색에서 보여지는 강렬하면서 세련된 도시적 감성을 보다 명쾌하고 분명하도록 살려 주면서도 지나친 강렬함을 완화시켜 주거나 혹은 지나치게 딱딱하거나 무미 건조할 수 있는 이미지를 보다 유연하고 부드럽게 전환시켜 주는 두 가지 양상을 주로 보여 주고 있었다.

② 유채색 중심의 배색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무+유/유' 배색 유형은 유채색과 무채색간의 톤 차이가 적은 유사톤이나 동일톤에 의한 배색으로 인하여 색상간의 구분이 분명치 않을 경우 색채톤이나 색상이 전혀 다른 분리색을 사용하여 모호한 색채 조화를 보다 분명히 해 주거나 대조톤이 사용되었으나 배색 자체의 재미나 변화가 모호한 경우 배색의 흥미를 더해 주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둘째, 유+유/무 배색 유형은 동일 색상 조화나 동일톤에 의한 색채 조화에서 나타날 수 있는 평범함이나 무난함을 무채색을 삽입하여 줌으로써 디자인에 재미를 더해 주기도 하고, 유사색상조화나 다소 모호한 색상배합으로 인한 애매함을 분명하게 해 주기도 하며, 또한 대조 색상 조화로 인한 지나친 강렬함을 다소 완화시켜 주면서도 세련됨과 생동감을 살려주고 있었다.

셋째, 유+유/유' 배색 유형은 유사 색상조화를 중심으로 배색되어 다소 애매하거나 불분명한 색상간의 관계를 톤 차이가 분명한 또다른 유채색을 분리색으로 사용하여 색상들간의 관계를 분명히 하여 주거나, 대조색상조화가 사용되어 지나친 화려함이나 극단적인 대조가 야기되었을 때 갈색이나 보라색 계열의 중성색을 삽입하여 충격을 완화하거나 부드럽고 세련되도록 하여 주거나, 또는 동일 색상 조화가 사용되어 단조로울 경우 주로 갈색 계열의 분리색을 사용하여 전반적인 색채 조화감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보다 세련되고 통일감이 우수면서도 시각적으로도 흥미있는 디자인을 보여 주고 있었다. 이 유형은 다른 어떤 유형보다도 색상의 사용이 다양할

수 있는 배색임으로 다양한 색상 사용으로 인하여 흥미있고 다양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처럼 두가지 이상의 유채색에 무채색 1개를 사용한 세퍼레이션 코디네이션의 배색 유형들은 주로 동일 혹은 유사한 색상조화나 색채톤에 의한 색채 배색에서 야기될 수 있는 단조로움이나 평범함을 분리색을 사용함으로써 시각적으로 흥미있고 매력적으로 만들어 주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3. 컬렉션 도시별 세퍼레이션 색채 코디네이션의 발생 비율과 양상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배색 유형은 밀란, 파리, 런던은 '유+유/무' 유형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그 다음은 '검정+흰색/유' 배색 유형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뉴욕은 다른 세 도시와는 달리 '유+유/유'배색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분리색은 각 도시별로 사용된 분리색의 유형도 다르고 유형별 발생빈도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색상조화의 유형은 모든 컬렉션에서 무채색에 의한 동일 색상조화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은 밀란을 제외하면 유채색에 의한 동일 색상조화의 순으로 많이 나타났으며 유사와 대조 색상조화는 컬렉션별로 발생 빈도순위와 빈도율에 다소 차이가 나타났고 무채색과 유채색에 의한 색상조화는 가장 적게 나타났다.**

이처럼 컬렉션별로 배색 유형과 분리색 유형별 발생비율과 양상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색상 조화의 경우에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보면, 최신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세퍼레이션 색채 코디네이션의 특성은 다양한 유형의 색채 배색과 분리색 그리고 색상조화의 방식이 여러 가지 양상으로 적용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다양한 색채 배색 방법은 여러가지 색상들을 의상 디자인에 사용할 때 시각적 즐거움이나 활력을 주는 동시에 조화감과 통일감을 유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색채 배색의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패션에 다양한 이미지와 시각적 효과의 창출을 가능케 하고 있었다. 또한 세퍼레이션 색채 코디네이션의 특성은 컬렉션 특성에 따라 배색의 유형별 발생 빈도율과 사용 방식에도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었다.



<사진 1>Collections  
05 SS Paris ,P.138



<사진 2>>Collections  
04/05 AW Paris, P.84



<사진 3>>Collections  
04/05 AW Paris,P.181



<사진 4>ollections  
08/09 AW N.Y,P.146



<사진 5>Collections  
08/09 AW Paris,P.30



<사진 6> Collections  
08/09 AW N.Y, P.359



<사진 7>Collections  
07/08 AW Paris



<사진8>Collections  
P.76 08 SS Paris,P.1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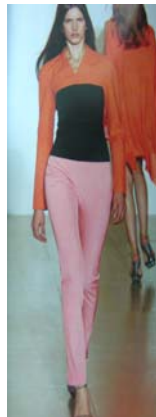
<사진9>Collections  
04/05 AW Paris,P.359



<사진10>Collections  
07 SS Paris P.326



<사진11>Collections  
07 SS Paris ,P.155



<사진12>Collections  
08 SS Milan, P.27



<사진 13> Collectionn  
05 SS Pairs, P.35



<사진 14> Collections  
04 SS Milan, P.147



<사진 15>Collection  
04 SS Milan, P.142

## 참고문헌

- 1) 장보경(1998), “한국 패션의 유행색 정보기획 사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
- 2) 조필교 · 정혜민(1998), *패션 디자인과 색채*, 전원문화사, p.113.
- 3) 유태순 외(2000), *색채학-이론과 실제*, 도서출판 성화, p.111.
- 4) 신상옥 외(2001), *현대 패션과 의생활*, 교문사, p.135.
- 5) johannes itten(1983), *색채의 예술*, 김수석(역), 지구문화사. p.25.
- 6) 유태순 외(2000), Op.cit., pp.94-111.
- 7) 조필교 · 정혜민, Op. cit., pp.113-114.
- 8) 김수윤(2001), “1990년대 전반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색채의 특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9) 김하니(2001), “1990년대 후반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색채의 특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0) 신윤희(2001),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와 컬러코디네이션의 상관성 분석 연구 - '90년대 여성의 패션을 중심으로 -”,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1) 송금옥(2000), “패션색채계획을 위한 검정색의 색채 특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2) 이송림(1999), 샤넬이미지를 통한 패션 코디네이션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3) 임경순(1999), “현대 패션코디네이션 연구 - 샤넬과 스키아파렐리의 작품을 중심으로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4) 박정훈(1990), “코디네이션의 연출에 관한 연구 - 개성연출을 위한 토털패션으로서의 메이크업을 중심으로 -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5) 유금화(2002), “여성성장의 2색 배색에 의한 이미지 지각”,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16) 권혜숙 · 심은아(2004), “현대 여성 패션에 나타난 색채 코디네이션의 유형과 유형별 특성 분석”,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6(3), pp.139-152.
- 17) 오희선 · 박화순(2000), *아름다운 여성을 위한 패션코디*, 경춘사 p.30.
- 18) Ibid. p.30.
- 19) 장보경(1998), “한국 패션의 유행색 정보기획 사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 재인용, Grandis, Ligina De(1986), *Theory and Use of Colour*, NY; Harry N. Abrams, Inc., p.35.
- 20) 신상옥 외, Op.cit., p.128.
- 21) 조기여 외(2000), *색채학 -이론과 실제-*, 도서출판 성화, p.19.
- 22) 이호정(1987), *복식디자인*, 교학연구사, p.77.
- 23) 다나 후이지(1991), *패션 코디네이트와 이미지 칼라진단*, 임경숙(역), (주)그래픽 사, p.9.
- 24) 우시우스웅(1999), *색채 디자인의 원리*. 유관호(역), 도서출판 청우, p.49.
- 25) 조필교 · 정혜민, Op.cit., p.25.
- 26) 유송옥(1997), Op. cit., p.214.
- 27) 조필교 · 정혜민, Op. cit., p.26.
- 28) 전선정 외(2000), *토털 코디네이션*, 청구 문화사, p.97.
- 29) 박필재 · 백숙자(2001), *컬러 코디네이트를 위한 색채학 입문*, 형설 출판사, p.39.
- 30) 정해정(2003), *컬러코디네이션*, 도서출판 국제, p.33.
- 31) 전선정 외, Op. cit., p.113.
- 32) Ibid., p.121.
- 33) 조필교 · 정혜민, Op.cit., p.114.
- 34) 박필재 · 백숙자, Op. cit., p.95.
- 35) 전선정 외, Op. cit., p.114.
- 36) 박필재 · 백숙자, Op.cit., p.95.
- 37) 유태순 외, Op. cit., p.105.
- 38) 이기연(2007, 5, 25), “색의 조화론”, 자료검색 일 2008, 5, 21. 자료출처 [http://kallery.net/index.php?g\\_cls=forum&g\\_prcss=thrd&g\\_tmplt=&g\\_brd=21&g\\_thrd=756](http://kallery.net/index.php?g_cls=forum&g_prcss=thrd&g_tmplt=&g_brd=21&g_thrd=756)
- 39) 조필교 · 정혜민, Op.cit., p.100.
- 40) 오희선 · 박화순, Op.cit. p.30.



- 41) 양리나 · 최나영(2000), *패션 연출*, 문왕사, PP. 61-62.
- 42) 장애란 · 안명숙 · 박우미(2000), *패션 코디네이션*, 예학사, P.52.
- 43) 오희선 · 박화순, Op. cit., p.30.
- 44) 라사라(1999), *컬러 코디네이션*. 신미문화정보, p.112.
- 45) 이흥규(1999), *컬러 이미지 사전*, 도서출판 조형사, p.100.
- 46) 오희선 外, Op.cit., p.30.
- 47) 양리나 · 최나영, Op.cit., p.62.
- 48) Collections, 04 S/S, I,II,III' 04'05 A/W I,II,III., '05 S/S I,II,III., 05/06 A/W I,II,III. 06 S/S I,II,III., 06/07 A/W I,II,III. 07 S/S I,II,III., 07/08 A/W I,II,III. 08 S/S I,II,III, 08/09 A/W I,II,III.
- 49) Collections, 05 SS, III, Paris, P.138.
- 50) Collections, 04/05 AW, III, Paris, P.84.
- 51) Collections, 04/05 AW,III, Paris, P.18.
- 52) Collections, 08/09 AW, I, N.Y, P.146.
- 53) Collections, 08/09 AW, III, Paris, P.30.
- 54) Collections 08/09 AW, I, N.Y, P.359.
- 55) Collections, 07/08 AW, III, Paris, P.76.
- 56) Collections, 08 SS, III, Paris, P.144.
- 57) Collections, 04/05 AW, III, Paris,.P.359.
- 58) Collections, 07 SS, III, Paris, P.326.
- 59) Collections, 07 SS, III, Paris, P.155.
- 60) Collections, 08 SS, II, Milan, P.27.
- 61) Collections, 05 SS, III, Pairs, P.35.
- 62) Collections, 04 SS, II, Milan, P.147.
- 63) Collections, 04 SS, II, Milan, P.142.

---

접수일(2008년 5월 23일)

수정일(1차 : 2008년 7월 15일)

게재확정일(2008년 7월 21일)